



'주유소 미래 모습' 영상 캡처.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첫선

CES2021서 드론 배송 등 영상 공개 그래픽 작업 통해 미래 주유소 구현

GS칼텍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2021'에 드론 배송과 미래형 주유소를 주제로 참가한다.

GS칼텍스는 CES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6일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열리는 CES 2021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967년 첫 행사가 열린 이후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GS칼텍스는 이번 CES2021에서 3편의 영상을 통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을 비롯해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선보인다. GS칼텍스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영상을 제작해 지난 5일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제출했다.

먼저 '드론 물류 실증사업' 영상에는 GS칼텍스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한 드론 배송 시연 내용을 담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무수천주유소에서 편의

점 상품 드론 배송 시연행사를 개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여수 소호주유소 및 장도에서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편의점 상품 배송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도서지역 드론 물류 사업모델' 영상에는 여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금오도 소재 초등학교에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연출 장면을 담았다. 향후 육지와 먼 도서지역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 섬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드론 배송이 미래 성장 사업 기회임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마지막 '주유소 미래 모습'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을 촬영한 뒤 그래픽 작업을 통해 주유소 미래 모습을 구현했다.

GS칼텍스는 이번 CES2021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 사업을 비롯한 미래형 주유소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두산그룹 오너 일가, 퓨얼셀 지분 매각

블록딜 방식 매각, 2700억 자금 마련

박정원 회장(사진)을 비롯한 두산그룹 오너일가가 두산퓨얼셀 지분을 매각해 2700억원대 자금마련에 성공했다.

두산퓨얼셀은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0명은 지분 532만7270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블록딜)으로 매각했다고 6일 밝혔다.

매각 지분을 보통주 8.13%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종전 46.59%에



서 38.45%로 낮아졌다.

매각금액은 전날 종가기준 5만7000원에서 9%대 할인율을 적용해 총 2770억원대로

알려졌다.

두산은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 상환과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청소기 먼지통, 거치 하면 자동으로 비워요”

LG전자 코드제로 A9 신제품 공개

LG전자 무선청소기가 먼지통까지 비워준다.

LG전자는 6일 코드제로 A9 신제품(사진)을 공개했다. 오는 11일(미국 현지시간) 개막하는 CES2021 가상 전시관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신제품은 신개념 거치대를 적용해 충전과 비움, 보관까지 한번에 처리해준다. 청소기를 거칠 때 터치 한 번이면 먼지통을 비워줘 따로 분리할 필요



가 없게 한 것. 자동으로 설정하면 거치만 하면 알아서 비워주게 할 수도 있다.

인테리어에도 유용하다. 일체형 구조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게 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고지 보이는 아시아나 인수전

대한항공, 발행주식 확대안 가결

임시주총 통해 정관 개정 의결
향후 인수필요 자금 기반 마련
3월까지 PMI 수립 마무리 예정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정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확대하는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것이었다. 임시 주총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가운데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그중 찬성 69.98%를 얻어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정관 개정에 성공한 만큼, 향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먼저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발행주식 총수를



대한항공 항공기.

늘리는 정관 개정을 시도한 이유도 이 같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또한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3차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및 영구채 인수 등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면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

아나항공의 신주 및 영구채를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 규모의 3차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신주는 물론, 영구채 3000억원도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주 인수대금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과 영구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 지급을 끝마쳤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통합계획안)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전자, 21개 스타트업·사내과제 'CES2021' 참가지원

올해 스타트업 참가지원 역대 최대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여러 스타트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11일(미국 현지시간) 개막하는 CES2021에 스타트업과 사내과제 21개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 4개와 C랩 아웃사이드 17개를 대상으로 했다. 2016년 스타트업에 CES 참가를 지원한 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에는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육성한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육성한 스타트업 6곳도 CES에 초대했다.

스타트업들은 온라인 CES에서 참관



C랩 아웃사이드에서 CES2021에 출품된 플렉스플래닛.

/삼성전자

객들과 실시간 미팅을 진행하고, 전시회 종료 후에도 1달간 웹사이트에서 전시와 미팅을 이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CES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전 세계 소

비자에 제품과 서비스 관련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CES에 참여하는 C랩 인사이트 4개 과제는 ▲영화관 화질을 TV에 반영해주는 '이지칼' ▲산소를 저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디바이스 '에어포켓' ▲의류 소재를 AI로 분석해 최적 솔루션을 추천해주는 IoT 디바이스 '스캔앤다이브' ▲음식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는 서비스 '푸드앤소믈리에' 등이다.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 한인국 상무는 "스타트업들이 CES라는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 밀리언셀러 등극

지난해까지 누적 출하량 100만대 돌파

삼성전자 비스포크가 밀리언 셀러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비스포크 라인업 누적 출하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비스포크는 2019년 6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으로 적용을 확대한 맞춤형 가전 콘셉트다. 월 평균 5만대 생산된 셈이다.

특히 비스포크 냉장고는 비스포크

가전 출하량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 모델로 자리잡았다. 출시 6개월만에 삼성전자 냉장고 매출 5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67%에 달했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현재 유럽과 중국, 중앙아시아 등에서 판매 중이다. 키친핏에 다양한 소재와 27종 도어 패널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올해부터 북미 등 판매 지역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기세척기도 지난해 6월 출시돼 단기간에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

/김재용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관리 앱 출시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장비 운영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인 'MYDI'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MYDI'는 건설장비의 구매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폐차까지 전 주기에 걸쳐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으로, 장비를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두산커넥트'와 연동해 건설장비의 위치 정보와 가동 현황, 부품 교환주기, 수리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